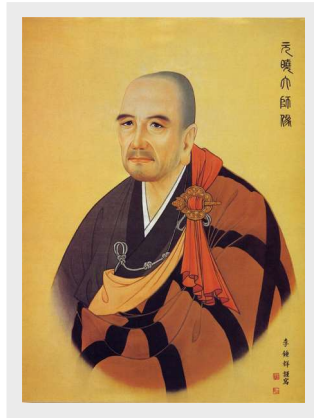


원효[元曉]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은 위대한 승려

617년(진평왕 39) ~ 686년(신문왕 6)



원효 표준영정

/ 전통문화포털(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

1 개요

원효(元曉, 617~686)는 7세기에 활동한 신라 승려이다. 그는 여러 불교 경전을 두루 섭렵하여 큰 깨달음을 얻은 후, 불교 사상과 종파들의 치열한 대립을 일심(一心)으로 통합하는 화쟁(和諍)을 주장하였으며, 당시 지배층 중심의 불교를 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한 위대한 종교가이자 사상가, 학자였다.

2 출생과 구도

원효(元曉)의 원래 성은 설씨(薛氏)이고 어릴 때 이름은 서당(誓幢)이었는데, 출가하여 원효라는 법명(法名)을 가지게 된다. 할아버지는 잉피공(仍皮公), 아버지는 나마(奈麻)를 지낸 담날(談捺)이다. 그는 617년(진평왕 39) 지금의 경북 경산시 자인면 혹은 압량면 지역에 해당하는 압량군(押梁郡) 남쪽 불지촌(佛地村) 북쪽 밤골 사라수(娑羅樹)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관련사료](#) 그러나 설씨가 보통 6두품에 해당하는 귀족이었고, 그의 부친이 중앙귀족에게만 수여하는 경위 11등 관등인 나마를 소지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집안은 신라 왕경 경주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효는 15세를 전후한 시기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는데, 특정한 스승 밑에서 경전을 배우지는 않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불법을 공부하였다. 혜숙(惠宿), 혜공(惠空), 대안(大安), 낭지(朗智) 등 당시 유명한 신라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하던 대승불교적 성향을 보여준다. 또 고구려에서 망명해 완산주(完山州, 지금의 전북 전주시)에 와 있던 보덕(普德)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전승도 있으며, 시기적으로 봐서 자장(慈藏)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타고난 총명함을 바탕으로 스스로 불경을 공부하고 수행다가, 650년(진덕여왕 4)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자, 함께 불법에 정진하던 8살 연하의 동료 의상(義湘, 625~702)과 함께 당 유학 길에 오른다. 그러나 요동에서 고구려군에 잡혀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후 661년(문무왕 1)에 두 사람은 다시 유학을 시도하는데, 도중에 밤이 되어 무덤 사이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 심한